창원특례시불교聯 7대회장 법안 스님 취임

사회통합과 지역화합, 소통 진력
"불교전통문화 보존 · 계승 주력"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는 3월 10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6대 회장 정인 스님과 제7대 회장 법안 스님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는 3월 10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6대 회장 정인 스님과 제7대 회장 법안 스님의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 · 취임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음성공양, 연혁보고, 공로패수여, 이임사, 신임회장 약력소개 추대패수여, 취임사, 격려사, 축사, 내빈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주사 가릉빈가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다도반의 헌다에 이어 상임고문 월봉 스님은 창원불교엽합회를 대표해 임기 중 창원불교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제6대 회장 정인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6대 회장 정인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창원불교연합회는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 사찰간의 화합을 위하고 창원시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되어 활동해왔다"며 "자비정신의 실천과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점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사찰의 법회와 연등행사도 취소하며 방역당국의 정책에 협조했지만 관계기관의 지원은 미약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창원불교연합회 상임고문 불곡사 도홍 스님은 제7대 회장에 취임하는 법안 스님에게 추대패를 전달했다.

법안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 중 원만하게 창원불교연합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온 정인스님에게 감사드린다"며 "전국의 어느 곳보다 신심이 돈독한 마산 창원 진해지역을 대표하는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장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전임 스님들이 펼쳐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불교의 상징이 되고 돈독한 신심과 부처님 법을 수행하여 사회 통합과 자비의 꽃이 화현되며 법향이 발현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정현섭 문화관광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불자들의 진정한 수행과 불교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명에도 더욱 충실하고 동북아 중심 창원특례시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더욱 일취월장하는 창원불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7대 회장에 취임한 법안 스님은 1980년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2011년~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장, 2012년~2014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결사추진위원회 위원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재)일붕선교종 제12대 총무원장 혜일 스님 취임법회

서울 일붕선원 대법당서 봉행
"종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3월 13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제 12대 총무원장 혜일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세검정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제 12대 총무원장 혜일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첫 순서는 교육원장 지언 스님의 발원문 낭독이었다. 지언 스님은 "저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들이 서로 화합 단결해 날로 발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며 "오늘 혜일 스님 취임법회에서 함께 발원하는 인연공덕으로 종단의 모든 사부대중들이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다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총무원장에 새로 취임한 혜일 스님은 "먼저 본 종단의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과 소통으로 종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정기연수교육 및 특별강연을 통해 덕망 있는 불교 전문학자들을 수시로 초청해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혜일 스님은 "각 교구종무원장님 및 중앙종회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전 종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종도들이 자발적으로 종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도 축사를 통해 "금일 총무원장에 취임하시는 혜일 큰스님께서는 외국서도 공부하셨고, 여러 가지 이력을 소유하신 능력 있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종단이 조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지만, 능히 다 지혜롭게 헤쳐 나가 주시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우리 종도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비 평화 정신으로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며 일심 원융으로 화합해 승가의 안정을 이루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법회에는 원로의장 대륜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대행 도정 스님, 前 총무원장 경원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포현문도회 석해 스님, 중앙종회부의장 지광 스님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양산 불광사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 개강

양산 불광사가 영남범음범패 통도소리와 범어소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3년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을 열었다.

3월 10일 경남 양산 덕계 불광사에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이사장 월인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대한불교교종 월성 스님, 보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강한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은 1학기 20주 동안 60시간의 강의를 진행한다. 목탁, 징, 강쇠, 북 등 사물을 활용한 삼귀의례, 청법게, 사홍서원, 도량석, 조석종성의 기초의식, 칠정례, 각단 및 정근, 축원, 사시불공, 기도입재, 각단불공이식, 욕재, 신중작법, 39위, 지장청, 관음시식, 봉송, 회향, 상용영반, 화엄시식, 다 비의식, 천도의식, 방생의식, 불상점안 등 특수의식을 강의한다.

영남 범음범패 불교대학의 강의는 경전교수에 도산 스님, 풍수학 교수에 여해 스님, 범음범패교수에 보암 스님, 청봉 스님, 동암 스님, 특강교수에 월인 스님, 마가 스님, 원명 스님이 강의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베트남서 나눔활동

태양광 정수시설 설치 등 봉사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마이산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베트남에서 해외복지 나눔활동을 펼쳤다.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베트남 닥락성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해외나눔활동은 닥락성 부온마투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오지마을학교인 '응우엔바응옥 초등학교' 의 태양광 정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협의회 의장과 전북종무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 스님은 올해의 해외복지나눔 슬로우건으로 '부처님의 감로수를 어린이들에게 나눔으로써 사랑과 용서로 행복을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이곳에 흐른다' 와 '자전거로 시원하게 달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보자' 는 슬로건을 목표로 삼고 해외 복지 나눔 활동을 실행에 옮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선 스님, 세계최초 점자시화전 개최



호랑이 그림으로 유명한 경북 성주 보림사 해선 스님이 세계최초로 점자시화전을 개최해 화제다. 3월 14일 오후 4시 대구문화예술회관 11전시실에서 개최된 해선 스님의 점자시화전 '챔과의 동행' 전이 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재룡 대구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등 내빈과 대구시 각장애인 등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해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하여 "저도 한때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미술 전시회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발상의 전환으로 오늘 점자시화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보는 그림에서 만지고 느끼는 그림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꿈꾸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말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착한벗들, 재한 베트남인 정착 간담회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전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 베트남 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3월 15일 (사)착한벗들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 레반흥 1등 서기관, 주한베트남교민회 부득르엉 회장, 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 호원대학교 김지연 교수, 전북전주외국인노동자 쉼터 담당자 황수진, 다꿈나눔실천봉사단 타잉 단장, 전주대 유학생 하이리 학생 등이 참석했다.

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은 "2012년 설립한 착한벗들은 2000여 명의 다양한 출신의 회원들이 있고 그 중에 베트남 교민들이 가장 많다"며 "여러 가지 사업 안에서 이주민들도 자원봉사에도 앞장서 이주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베트남 교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 부안해양경찰서 업무협약 추진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와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가 부안해양경찰서 직원들의 정신수양과 정서안정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3월 14일 내소사와 부안 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내소사와 부안해양경찰서는 템플스테이 및 명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3월 말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내소사는 해양사고 및 범죄 현장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 소속 직원들에게 내소사의 아름다운 자연풍광 속에서 정신 수양과 정서 안정을 통해 마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부안해양경찰서는 내소사 템플스테이 체험 활성화와 한국 전통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에서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먼저 부안해양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추후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 가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4대 종교 성직자 함께한 음악회 열려



4대 종교 성직자가 함께한 음악회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11일 각황전 앞마당에서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참여하는 '4대 종교 평화음악회, 각 종교단체로 찾아가는 음악회' 를 진행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불교(정율 · 무상스님), 원불교(한청복 · 김성곤 교무), 천주교(정범수 신부), 기독교(김선경 · 구자억 목사) 종교인과 108명의 부다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홍매화를 관람하러 온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4대 종교가 함께하는 '좋은 인연' 이란 찬불가로 시작했으며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대표해 성직자들의 성악, 팝송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다.

특히 관객들과 호응하듯 춤과 노래, 연주로 관객을 찾은 성직자들의 버스킹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광주 보은사, 혜총 스님 초청법회 개최



송광사 광주 광산포교당 보은사(주지 도제)는 지난 3월 12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초청 '제3회 고월 백고자 법회' 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고좌 법회는 달에 한 번씩 10년 불사를 진행하면 보은사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신도들도 복덕이 가정에 충만할 것"이라며 "불교는 불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잘 되어 세계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불국토"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백고좌 법회에 있으니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하듯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제 스님은 법문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큰스님과 깊은 인연으로 모시게 되어 감사하다.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광주 약사사 봉축 전통등강습회 개최



광주지역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광주 약사사(주지 무진)는 지난 3월 15일 경내에서 올해 봉축행사 연등행렬에 참여할 행렬등 강습회를 진행했다. 약사사 신도들이 연등행진에 참여할 보리수등을 만드는 이날 강좌는 15여 명의 신도가 참여해, 골조제작과 배접 등을 진행했다.

무진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초파일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많은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습회를 진행한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은 "각 사찰에서 전통등을 들고 연등행진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인류무형문화제로 등록된 연등회를 가장 즐겁게 즐기는 방법"이라며 "강습회를 통해 초파일 행사를 준비하듯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278차 월례회의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는 3월 16일 오전 충북 괴산 흥천사에서 제278차 월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논의했다.

서병열 종정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불참한 회장 월인 스님을 대신해 상임부회장 정림 스님과 재무원장 도우 스님, 흥천사 회주 동봉 스님 등 종정협의회 소속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15일 대한불교 성덕종 주최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봉행하는 '제7회 망향의 동산 고혼 위령 천도재' 와 4월 25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일붕신문 창간 40주년 및 제5대 총재 월인 스님 취임식' , 6월 논산훈련소 장병 위문 법회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